

‘여수 미래 100년’ 내다본다… 르네상스 계획 구체화

시민·전문가 참여한 포럼 개최
민선 8기 핵심 사업 방향 모색
해양레저·남해안 관광 등 제언
5개 만별 특색 맞는 보전·개발

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시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균형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19일 여수시는 전날 여수문화홀에서 ‘여수 미래 100년, 여수만 르네상스 시민 포럼’을 개최하고 민선 8기 핵심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여수시 역할’을 주제로 그간의 성과

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여수시민,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여수만 르네상스 현황 보고, 주제 발표, 현안 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조우정 한국해양대 교수가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에 따른 수산업과의 상생 방안’을, 이상립 서울대 인구정책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여수 중심 남해안 관광시대 개막 대비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주민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정희선 범민문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현안 논의에서는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 김신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사무국장,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해 여수만 르네상스 발전을 위한 인구전략 구상, 수산자원 연계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여수시의 역할과 정책 방안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여 여수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 귀한 시간이었다”며 “제시된 의견을 정교하게 다듬어 여수시민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여수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비전으로 5개 만별 특색에 맞는 보전과 균형 개발을 목표로 한다. 총 58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국가지질공원 인증, 국가해양 생태공원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는 지난 18일 오후 여수문화홀에서 ‘여수 미래 100년, 여수만 르네상스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순천시 월등면, 매실 수확체험행사 성료

관내 지역 주민 150명 참여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은 지난 14일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잔디광장 일원에서 안양시 주민자치위원 60명을 비롯한 관내 지역 주민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월등향매실 수확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예정되었던 매실 수확은 우천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미리 수확한 매실 5kg 160상자를 준비해 사전에 접수한 100팀에게 공급했다.

참가자들은 가족, 지인과 함께 매실이 주는 특유의 향과 싱싱함, 풍요로움을 느끼며 매실청을 담그는 요령에 따라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부대행사로는 하바리움·모스키토 만들

기, 부채 꾸미기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체험행사 프로그램과 월등 매실로 만든 매실청 시음,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 특별한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정관석 주민자치회장은 “비가 내려 매실 수확 체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이 월등 매실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월등면 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을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재성 월등면장은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우수한 품질의 월등 매실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 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14일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잔디광장 일원에서 제3회 월등향매실 수확체험행사 참가자들이 매실청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재시동… 도민 공감대 확산

동부권 도민설명회 개최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부권 도민설명회를 19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와 정부·국회 대상 건의 활동 전개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와 전남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한숙경 의원, 도내 사회단체·유관기관, 마을대표, 민원메신저, 시군 공직자 등 400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취지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관심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특별법에 담은 주요 특례를 소개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효진 성결대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박사는 전남은 인구감소·고령화·청년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의 최전선으로 타 시·도보다 강도 높은

제도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시·도에 특화된 맞춤형 권한 이양과 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 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강·향남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김성수 기자

GS칼텍스, 소액 기부 캠페인 3년… 지역사회 온기

‘소액기부 WEEK, 천원의 행복’
1만1000명 참여, 누적 1억원 ↑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임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인 ‘소액 기부 WEEK, 천원의 행복’이 시행 3주년을 맞았다.

19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천원의 행복’ 캠페인은 임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0원을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누적 참여 인원 1만1147명, 회사 매칭그

랜트 포함 누적 기부금은 1억231만원에 달한다.

GS칼텍스는 임직원의 편리한 기부 참여를 위해 매월 초 임직원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 기부 기기를 설치, 사원증태그만으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기부 시스템을 통한 모금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미평동주민센터와 공동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실행하는 등 민간산 협력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6월 수혜자는 여수경찰서 ‘위더

스 협의회’ 사례 회의를 통해 발굴된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로 심리 상담, 교육비, 의류 구매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여수경찰서에서 ‘GS칼텍스 소액기부 WEEK 천원의 행복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GS칼텍스 김성민 생산본부장은 “회사 임직원이 지역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지난 3년간의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기반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성가롤로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포럼

전라남도 순천시와 성가롤로병원은 지난 18일 호남호국기념관 다목적 강당에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남 지역 유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오는 7월1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센터 구축과 관련된 진행 사항을 알리고 체계적인 센터운영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 광주·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남대병원), 순천시의사회 등 학계 및 의료전문가,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신민호 전남대 의대 교수, 이지혜 건국대 의대 교수, 조장현 성가롤로병원 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대응강화 방안’에 대한 심

도 깊은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신민호 교수는 “권역센터와 지역센터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연결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순천형 지역안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